

월요광장



박 석 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5·18 소년 시민군’ 출신 김향득 사진가가 지난달 7 일 저녁 7시 25분 별세했다. 향년 62.”

1980년 5월 민주항쟁 기간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사회보’를 뿌리며 항쟁의 대열에 참여했던 소년투 사였으나, 계엄군이 광주로 재진입한다는 소식을 듣자 총을 들고 YWCA 시민군 결집장소의 정문을 지키던 무 장시민군으로 광주의 새벽을 지켜내다 끝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던 소년 ‘꼭도’였다.

김 군이 눈을 감은 날짜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 다. ‘5월, 새벽을 지키는 소년들’ (2023.2. 백산서당)이 라는 책은 ‘10대들의 5·18 민중항쟁기록’이라는 부제 가 보여주듯 5월 27일 새벽을 지키다가 죽어갔거나 살 아남아 민주주의를 회복하려 생을 걸었던 소년들의 이 야기를 모은 책이다. 그 책에 나오는 김향득 군의 이야 기와 별세한 뒤 신문기사들을 참고하여 더 잊히기 전에 김 군에 관한 삶과 의혼을 알리고 싶었다.

1962년생인 김 군은 1979년 광주 대동고등학교 2학 년 학생이었다. 그때 나는 그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 던 교사였다. 김 군은 같은 학년 친구들과 함께 정부정

수필의 향기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1970년 초, 광주 사람들조차 모르는 무각사를 김호 남이 찾아든다. 박정희의 첫째 부인이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낯선 광주까지 온 걸까.

지금과 달리 무각사(無覺寺)는 상무대라는 군부대 사찰이다. ‘무’는 무심, 무위, 무아, 무념 등 절대적이 자 까마득한 경지를, ‘각’은 공극의 깨달음인 해탈의 경 지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다. 무와 각은 전혀 같지 않은 반의어이면서 같은 의미를 지닌 동의어다. 이 무각사 에는 현대사에 잘 알려진 여인과 철저히 감춰진 여인에 얽힌 아픈 이야기가 서려 있다.

불교에서 6 바라밀은 생사고해를 건너 열반의 경지 에 이르는 실천 수행 방법이다.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 는 보시, 철저히 계율을 지키는 지계, 온갖 번뇌를 참고 언짢은 마음을 견디는 일이 인욕, 그리고 부단한 정진 을 통해 선정과 반야에 들 수 있다.

김호남은 해인사와 연호사, 부산 등지의 경상도 여 러 사찰을 떠돈다. 남편이었던 박정희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했으니, 그가 누린 영광의 이면에 첫 째 부인이었던 김호남에 대한 감시는 여간 아니었을 것

기 고



이 병 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 시원지요 호남의 대표 도시 로 국난의 고비마다 중심에 서왔다. 조선시대 호남의 병들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였는가는 1593년 7월 16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헌부 헌덕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절상호남국가지보장(竊恨湖南國家之保障) 약무호 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란 글귀는 호남은 나라 의 울타리요,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이순 신 장군의 뜻이 파궤되어 있다.

광주 금남로는 민주화 발발지로 3·15의거, 4·19혁 명, 5·18 민주화운동 , 6월항쟁, 촛불혁명, 12·3비상계엄항쟁지 등으로 유일의 대한민국 민주화 시원지다.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요 민주성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 도시, 광주가 품고있 는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광주정신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버스를 타고 내리지만 광주의 버스 가운데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버스가 있다.

바로 419번, 518번, 그리고 1187번 버스다. 이 세 노 선은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아니라 광주의

‘5·18 소년 시민군’ 고 김향득 사진가

책(유신시대)에 반대하는 시위를 교내에서 감행했었 다. 그날이 1979년 10월 26일이었다. 데모 주동자로 7 ~8명이 수사당국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으며 조사를 받았다. 퇴학당하고 구속되는 등 온갖 고생이 기다리 던 때,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때 대통령이 부하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뒤가 되고 말았다. 학생들은 모두 폴 러났고 조사를 받게 되어 있던 나도 아무런 일이 없고 말았다. 그런 행운도 다 있었다.

그러나 해가 지나자 1980년 5·18에 그들 학생 대부 분이 소년 시민군이 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했지만 끝 내는 새벽을 지키는 소년들이 되었으니, 그 대표적 인물 의 한 사람이 바로 김향득 군이었다. 체포되어 보안대 로 끌려가 상무대 영창에 갇히면서 그들이 당한 고문과 탄압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음을 그들의 기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문으로 몸이 위험해지자 2개월 만에 김향득은 출 소했다. 그는 병을 앓으면서 학교에 다녔고 학교에서 배운 사진 기술로 사진작가가 되어 5월 이후의 광주·전 남 민주화 역사를 영글에 담기 시작했다. 수만 장의 사 진을 남겼더니 그의 애국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 가. 영창에서 얻은 고문으로 인한 병은 끝내 그에게 파 킨손병으로 옮겨졌고, 병을 앓으면서도 그는 사진찍기 를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2023년 4월 중순 자택에서 쓰러져 폐렴과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서 2년이 넘도록 신음하다 지난달 끝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오호 통재로다!

김 군은 고교생 시절부터 사회과학 서적 등을 탐독했

고 독서회에 가입하여 많은 책을 읽으면서 유신독재에 맞서야 한다는 저항의식을 키웠다고 한다. 5월 26일 계 엄군이 재진입하면 시민군은 모두 죽을 수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로 각오한 대학생 시민군들 은 어린 학생들은 모두 귀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 만, 새벽을 지키는 소년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청과 YWCA를 지키는 위대한 5·18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 였다.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위대한 희생정 신을 실천으로 옮겼던 것이다. 이 얼마나 거룩한 희생 정신인가. 죽기는 싫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보 편적 마음이다. 그런 인간의 본능을 극복하고 죽음을 택한 장엄한 애국심,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 려던 애국선열들과 무엇이 다른가.

선배 대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앤지 나 혼자 가기가 쑥스러웠어요. 만약에 가면 진짜로 군인들이 와서 진압을 하면서 형들 다 끌려갈 것이고 죽을 것인 데…” 라는 생각에서 총을 들고 YWCA 정문을 총을 들고 지키다가 계엄군에게 생포되고 말았으니, 순진무 구한 소년의 참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런 생각과 행위로 위대하지만 병든 몸으로 역사를 잊어 서는 안 된다면서 5·18과 민주주의의 유적을 모두 사진 에 담았던 작가정신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김향득의 탁 월한 정의로운 마음이었다.

만날 때마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큰 도움 도 주지 못했는데 이제 영원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 니, 의인을 잃은 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기 그지없다. 향득 군!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편히 쉬게나.

무각사와 두 여인

이다. 그래도 한때 왕의 여자가 아닌가.

그런데 그때마다 육영수가 찾아와 도움을 준다. 그 것도 몇 년, 오랫동안 청와대 감시는 물론, 육영수의 도 움은 그녀로서 그리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흠을 벗어나고 싶었을 게다. 한 명은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감시했고, 또 한 명은 지긋지긋하게 찾아왔다. 그 지독 한 사람 감옥에서 벗어날 곳은 어디일까. 호남(好南), 이름부터 운명이었는지 모른다.

바로 무각사다. 무각사는 1971년 구산(九山) 스님 이 막 창건한 사찰이다. 민간인과 단절된 사찰은 김호 남에게 자신을 감주며 ‘인욕’ 하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 같다. 게다가 대구에서 멀고도 낯선 곳이다. 호남은 아니 무각사는 김호남이 택할 수 있는 최고 선택지였 는 지 모른다.

그런데 김호남의 뜻은 여기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영수의 발길은 절기계 이곳까지 이어진다. 부처님 손바닥 안, 사찰조차 사찰한 절대권력을 피할 수 없었 다. 덕분에 무각사는 짧은 시간에 변장했다. 왜 육영수 는 그렇게 그녀를 따라다니며 도왔을까. 혹시 자신에 게 곧 닥칠 미래를 예측했던 걸까. 아니면 자신도 견딜 ‘인욕’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얼마 후 1974년 육영수는 8·15 광복절 기념 식 날 급사한다. 5년 후, 1979년 10월 26일에는 박정 희도 아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부하의 총탄에 비명횡사한다. 둘 다 예상치 못한 최후다.

어쩌면 그녀는 이 무각사에서 그녀의 최후를 알았을 것 같다. 그리고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온 시민군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때 그녀 심정은 어땠을까. 상무대는 1994년 장성 삼서면 일대로 옮긴다. 무각사는 군대라 는 심산유곡에서 벗어나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1991년, 독재의 막이 내릴 즈음, 그녀 역시 시난고 난한 칠십 여 생을 마감한다.

그녀의 생은 ‘인욕’의 삶이었다. 환영받지 못한 결혼 과 출산, 초지일관 남편의 외면, 데는 견딜 수 없던 그 녀는 더 맹렬히 인욕 하고자 부처님 품에 귀의했다. 열 여섯에 결혼하여 딸 하나 낳고 죽을 때까지 반백 년이 흘렀 켜는 인욕의 기간, 특히 그가 집권한 장장 17년 동 안 그녀는 시시각각 총각을 닮투며 법당에서 간절하게 선정과 지혜를 염원했을 것 같다. 그 선정과 반야가 바 로 ‘깨달음 외에 아무것도 없는’ ‘무각’ 아니던가.

박정희는 1963년 5대 대선에서 호남에서 35만 표 차 의 물표를 얻어서 15만 표 차로 당선되었다. 그렇지만 집권 이후 아내를 끝까지 외면했고, 철저하게 호남을 배 제했다. 시종일관 김호남을 미워했던 것처럼 호남을 배척한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한 것이다.

그런 그의 공식적인 부인 둘이 만난 지점이 바로 광 주 무각사다. 한 치 앞 삶도 보지 못한 게 인간이라더 니, 그가 외면한 아니 배신한 광주 한복판에서 그의 전 처와 후처가 서로 연인을 주고받으며 화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부하에게 버림받은 대통령, 그리고 광적인 욕망에 쌓인 지아비와 얽힌 두 여인이 생의 실타래를 풀려고 했던, 생의 많은 교훈을 주는 무각사. 오늘은 이곳에서 미워한 죄, 그 삶의 ‘무각’을 깨워준다.

달리는 광주정신

역사문화와 혼을 함께 싣고 달리는 버스, 곧 길을 달리는 광주정신이다.

419번 버스는 4·19혁명정신과 광주정신을 싣고 광 주시내를 달린다. 1960년 4월 19일 자유와 정의를 위 해 불의에 항거한 광주학생들과 시민들은 금남로와 충 장로 거리에서 경찰이 최루탄 등으로 저지하였으나 거 섯파도를 막지 못했다.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4·19기념사업회는 4·19 최 초발상지(중앙초교(⇒)서방사거리) 거리를 지나는 419버스 운행을 광주주시에 제안, 광주시는 이를 승인하 고 2012년 4월 14일 기존 금남56번 버스를 ‘419번’으 로 바꾸었다. 바로 이 길이 4·19영웅들이 자유와 정의 를 위해 피흘리며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장소다.

이 버스는 조선대학교에서 출발해 문화전당(옛 전남 도청 앞 광장),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광주교, 전남대 후문로 등으로 이어진다.

그 길은 광주의 학생운동과 민주정신이 피어난 자 리이기도 하다. 4·19 영웅들은 직접 419번 버스를 타 고 시승행사를 갖고 고비고비 4·19격전지를 바라보 면서 당시를 회상 하기도했다. 419 버스가 송고한 4· 19정신과 광주정신의 불씨를 영원히 이어가길 바라 다.

광주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또 하나의 버스가 있다. 바로 518번 버스다. 518번 버스는 1980년 5월 18일부 터 5월 27까지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군사독재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 고 광주시내 외곽은 국군들로 포위 돼 있었다. 광주는

社 說

금타 광주공장 시범가동...아무리 급하다지만

금호타이어가 지난 5월 대형 화재로 전 소된 광주 2공장에 대한 시범 가동에 들 어가자 노조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발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80여명의 근로 자를 투입해 오전·오후 2교대로 하루 16 시간씩 가동하면서 1000본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측은 비닐과 천으로 지붕 가림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반 야 외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안전사고는 물론 초겨울 날씨 에 따른 추위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붕도 없는 공장에서 작업하는 것은 인권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며 반발하는 노조에 대해 회사측은 지붕이 뚫린 곳에 서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달 중 지 붕 보수가 완료되면 작업을 재개할 것이 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붕이 뿔 뚫려 있는 지 가림막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안 전한 작업 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십 보 백보’ 차이다.

회사측이 광주공장 가동을 서두르는 것 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광주공장이 금 호타이어 국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 고 있고 올해 매출 5조원을 목표로 삼았 는데 느닷 없는 화재로 차질이 생겼기 때 문일 것이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이 22.6% 감소해 광주공장 화재 영향을 받 았다.

그렇다고 서둘러 공장 가동을 하는 것 은 근시안적 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 현장 최 대 관심사인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 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 다. 9명의 사상자와 실종자를 낸 울산화 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도 안전 대책 없이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하지 않았는가.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 가동은 비단 근 로자뿐 아니라 주변 시민들도 불안한 시 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 라는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근로장려금, 실질소득 반영해 제도 개선해야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저 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 르면 2023년(귀속 연도)에 근로장려금 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가구는 33만 1000세대로 전년보다 9000세대가 줄었 다. 지역 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수는 2021년 34만 5000세대, 2022년 34만 세대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매년 신 청 가구 가운데 6~7만 세대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2008년 도입한 제도로 총소득 44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을 받는 등 저소득 가구에게 총소득의 7.5~8.9%를 지급하 고 있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 물가를 반영한 실 질소득이 아니라 명목소득이다 보니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급 등 명목소득이 조금

는 데 반해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는 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만 하더라도 2023년 가구당 근로 소득은 전년보다 0.4%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해 근로장려금 수급자 감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현실과 동떨어진 재산 요건도 문제다. 수급자가 되려면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 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채까지 포함해 대출을 끼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가구도 수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이 연간 4400만원을 넘으면 받지 못할 정도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그 런데도 실질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부채까 지 자산으로 보고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 준 탓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급이라 도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도 입 취지에 맞는 일이다.

無 等 鼓 	
올해는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광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한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 을 주었다. 해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윤 동주는 유년시절부터 ‘어린이’ 잡지 등을 구독하며 시인의 꿈을 키웠다. 광명중학 교를 거쳐 서울의 연희전문(현 연세대)을 졸업 후 일본 유학을 떠난다. 뒷고대에 입학하고 도시사대로 옮겼지만 사상이 불 온하다는 죄목으로 일경에 체포돼 옥사(獄死)를 당한다. 윤동주 시인의 80주기 와 맞물려 그를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 가운데 지역에서도 의미있는 무대가 펼쳐 졌다. 지난 달 광주 남구문예회관 공연장 에서 무대에 올려진 융복합 공연 ‘윤동 주, 그를 만나’는 시인의 시 세계를 다 층적으로 보여졌다. 특히 ‘자화상’, ‘서 시’, ‘별 헤는 밤’ 등 애송시들을 모티브로 한 창작곡과 샌드아트, 낭독 등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공감의 무대였다. 이에 앞서 일본 도시사대는 지난 2월 윤동주 시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 다. 1875년 설립된 도시사 대학이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윤동주의 문학과 삶이 일본인들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학 측은 “윤동주 시인을 우리 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 담긴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문학계에서도 윤동주 80주기 관련 행 사들이 진행됐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 맥’이 공동 주관하는 ‘동주문학상’은 올해 10회를 맞아 어느 해보다 그 의미가 남달 랐다. 윤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구현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 고 있으며 본상 1000만 원을 비롯해 해외작가상 등 모두 4개 부문에 걸쳐 상을 수여한다. 본상 수상자인 김종미 시인은 인터뷰에 서 “시인의 길을 끝까지 가는 과정에 동주 문학상 수상이라는 꽃을 만났다”며 “윤동 주 시인은 누구보다 현존재를 살다 간 시 인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국어로 글 을 쓰고 사유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 복이다. 나아가 시를 통해 불의한 세계를 고발하는 것은 윤동주 시인의 유훈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